



시장에서 핫한 투자 소식

2월 26일 증시 분석

주식, 투자, 금융 정보



금일(2월 26일) 뉴욕증시는 안전자산 국채가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빠지며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500

31,402.01pt

13,119.43pt

3,829.34pt

▼1.75%

▼3.52%

▼2.45%

다우는 1.75%, S&P500은 2.45%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52%나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말 이후
가장 큰 하루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완화적인 발언을 내놨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전일 하원 증언에서 물가 목표 달성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 기간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재차 밝히면서
반락하는 듯했던 금리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단위: %



경제 회복 가속과 물가 상승 전망이 꾸준히
금리 상승에 압력을 가하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금일 1.5%를 넘어서며
고평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불안이 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강세장을 이끌던
애플,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약 3%씩 하락했으며, 테슬라는 8%넘게 급락하며
올해 주가 상승분을 모두 날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999.16

INDEXNASDAQ: SOX

-184.57 (5.80%) ↓

2월 25일 오후 5:15 GMT-5 ·면책조항



또한, 엔비디아,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반도체 업종도 급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급락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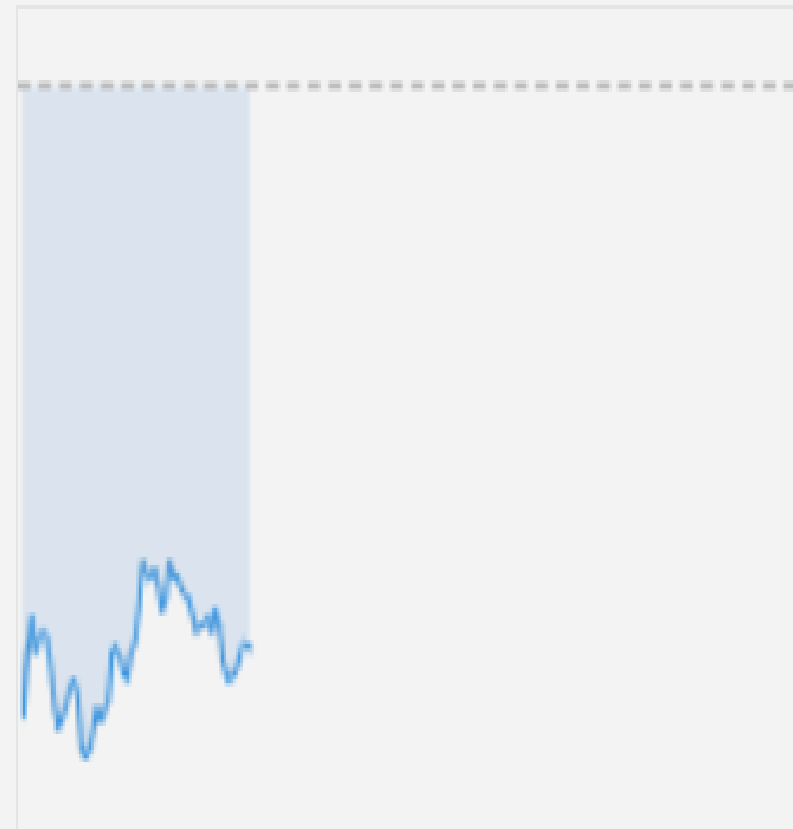
KOSPI 02.26.

3,011.98 ▼ 87.71 (-2.83%)



KOSDAQ 02.26.

912.08 ▼ 24.13 (-2.58%)



2월 26일 오전 11시 기준

미국 국채금리와 뉴욕증시 주요 지수의
급락세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면서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시작 후
2시간만에 2.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